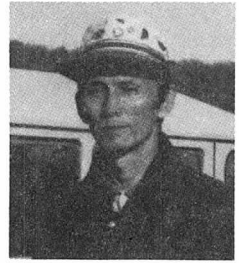


壽石人의 自然保護

樹庭
李 銀 植



人間生活, 그중에서도 소음과 공해로 뒤범벅이 된 都市生活로 인하여 긴장된 신경을 풀려면, 주말에 산과 강으로 발길을 옮겨 기분을 전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을 것이다.

1977년에 “환경 보전법”이 제정되고 1978년엔 自然保護憲章이 宣布됨에 따라 自然을 保護하자는 의침이 높아졌다.

또한 一部 似而非 등산, 낚시, 분재, 수석 애호가들의 물지각한 행위로 말미암아 선의의 여가 선용을 하는 시민들조차 자연 훼손자로 몰린적이 있었다.

어언 약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어느 신문 사설에 보니 하늘에는 아황산 가스, 땅에는 세계 거품, 이게 우리나라이다.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어느새 이렇게 바뀌었다. 건강을 위해 산을 찾고 물 찾아 나서면서 왜 山水에 중병을 안겨주고 오는지 모를 일이다. 요즘은 만연하고 있는, 남은 어땡들간에 나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위험한 사고에 물이 든 것인지 자연은 훼손이 되든 말든 나만 좋은 돌을 가지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다소 있는것 같다.

이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그릇된 생각이다. 국가, 정치, 경제 질서는 어떻게 되든지 나만 한탕해서 잘 먹고 잘살면 된다고 날뛰다가 추한 모습으로 쇠고랑을 차는 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6일간의 혼탁한 도시 생활에서 시달리다가 주말에 몇몇 직장 동료, 혹은 가까운 가족과 함께 남한강, 한탄강등지의 강가에 나간다. 강에 도착하자 마자 맑은 공기, 향긋한 풀내음을 맡아가며, 흐르는 물을 거울삼아, 비록 생존경쟁에 찌든 얼굴이지만 물방개를 잡으며 천진스럽던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고 오늘을 반성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예쁜돌이라도 하나 찾으면 즐거운 합성으로 저마다의 정을 복돋운다.

그리고 석양노을을 안주삼아 기울이는 한잔의 소주 맛은 인간이면 누구나가 일생동안 추구하는 행복의 순간이 아니겠는가! 여기에 무슨 자연훼손이 있겠는가? 探石은 愛石이고 自然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의 결정체인 것이다. 바윗돌을 자르고 축대돌을 빼내고 농작물이 무성한 논밭을 함부로 짓밟아 농민들의 빈축 대상이 되고, 강가의 돌밭에서 探石을 빙자하여 과음, 고성 방가하는 행위등은 올바른 探石人이 아닌 자들의 소행으로 규정 짓고 싶다.

환경보전법이 제정된 것도 조상이 물려 준 아름다운 이 강산을 우리 생활에 휴식과 정서를 제공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염과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우리가 누리는 이 혜택을 후손들에게도 깨끗이 물려 주고 항상 自然에 감사하고 애호하는 정신을 갖도록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안다.

探石을 하여 자연 속에 묻혀있는 돌을 정성껏 닦고 치장하여 보존하는 것은 진정코 그돌, 아니 그 自然을 아끼자는 것이다. 오늘날 전국의 수많은 애석인들의 대부분은 정말로 自然의 소중함과 오묘한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로 생각한다. 나 하나의 잘못된 행위의 결과가 전체 애석인의 머리위로 비난과 지탄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자숙하고 다가 오는 주말, 情과 幸福의 소리로 가득 찰 강가 돌밭을 생각하며 각자의 소임에 충실하면 밝은 사회를 이루어 가는 건강한 취미생활로서의 탐석행이 가볍지 않겠는가! 애국이 따로 있는가, 하늘엔 맑은 공기, 땅엔 맑은 물이 곧 그것이지늘……

(筆者=本會會員·서울市壽石聯企劃委員·韓國電子通信研究所 서울事務所長)